

Anthony J. Tomasino 박사, 십계명

세션 5, 계명 4: 안식일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5차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입니다.

이제 네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세요.

하지만 여러분 중 일부는 에릭 리델이라는 이름과 영화 "불의 전차"를 알고 계실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명백하게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큰 호평을 받은 몇 안 되는 영화 중 하나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음악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에릭 리델은 1924년 올림픽에 출전하도록 선발된 스코틀랜드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문제는 리델이 매우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일요일에 경주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결승전이 일요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인 그 경기에서 기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200m와 400m 경주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400m 경기 전, 한 여성이 그에게 쪽지를 건네주었고, 그 쪽지를 뜯어보니 성경 구절이 휘갈겨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리델은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냈지만, 그 종목이 그의 최고 성적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할리우드 덕분에 리델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안식일 준수자 중 한 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그가 유일한 안식일 준수자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여러 명, 특히 프로 운동선수들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1995년생인 엘리 헤링은 NFL 드래프트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경기가 일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는 안식일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6자리 연봉 계약이 확실시되었지만, 자신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언은 "일요일은 돈을 버는 날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날이다"였습니다. 마이클 존스는 축구 선수였고, 럭비 선수라기보다는 스타 럭비 선수였습니다. 일요일에 예정된 1991년 뉴질랜드 월드컵 경기에서 말이죠.

존스는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경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팀은 3위를 차지했고, 존스는 국민 영웅에서 뉴질랜드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키려는 노력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계명은 이러하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남편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무슨 뜻일까요? 학자들이 어원을 놓고 논쟁을 벌여 온 단어 중 하나입니다. 꽤 간단해 보이지만, 물론 겉보기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는 '멈추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샤밧(Shabbat)'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식일(Sabbath)'은 '멈추다' 또는 '멈추다'를 의미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문제 중 하나는 이 경우 명사 형태가 그다지 의미가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멈추는 날이기 때문에 '멈추는 날' 또는 '끝나는 날'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 주의 끝, 즉 한 주가 끝났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일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의 법적 의미, 즉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여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어도 그들의 관점에서는 명확히 하기 위해 온갖 규칙을 더하기로 결정한 후에야 안식일은 훨씬 더 명확하고, 심지어 부담스러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안식일은 엄밀히 말하면 '이상한 날'입니다. 하루를 쉬는 날, 일을 하지 않는 날, 예배하는 날, 돈을 벌지 않는 날로 따로 정해 놓는다는 생각은 우리 미국 정신과는 약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미국인은 하루 종일 일하고, 그것이 바로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쉬지 않는 것이 미덕인데,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다소 낯설고 생소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고대 세계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연히 그 중 하나였을까요? 글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 할례가 매우 널리 퍼져 있었고,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 중 다수가 다양한 방식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교수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아이가 13살쯤 되면 통과 의례로 할례를 행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고대 세계에서는 돼지고기를 금하는 것도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유대인들 외에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다른 민족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 중 어느 누구도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열흘째 날을 따로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는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많지 않고, 음, 증거들이 다소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날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분명 정체성의 표식이었습니다. 할례가 아브라함 언약의 표식이었던 것처럼, 안식일은 시나이 산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자신들을 특별하게 만들고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존재로 여겼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런 개념이 생겨났을까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1900년대 초, 마인홀트라는 독일 학자가 바빌로니아 용어인 '세푸투(Sheputu)'를 발견했습니다. 이 단어는 '세부투(Sebutu)'로도 해석되었는데, 바빌로니아어에서 형태소나 음소가 어느 쪽으로든 발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학설에 따르면, 매달 열리는 바빌로니아의 축제였던 '세부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 개념의 기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한 증거가 있는데, 오랫동안 이 이론은 지지를 잃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사항들은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이 언급될 때 종종 초하루와 연관되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초하루 또는 안식일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서에는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와 안식일을 싫어한다"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초하루와 안식일은 종종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이론은 안식일이 보름달을 가리킬 수 있으며, 이는 바빌로니아인들이 매달 축제를 지냈다는 생각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원래 초하루에 기념하는 월례 축제였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매우 오래된 일부 본문에서는 일곱째 날마다 쉬고, 가축에게 휴식을 주고, 땅을 쉬게 하는 등의 내용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절들 중 일부, 사실 학자들이 매우 초기의 것으로 간주하는 구절들 중 일부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름달 축제였던 안식일이 일곱째 날의 안식일과 합쳐져서 안식일이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매우 추측적인 주장이고, 그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기발한 주장이지만,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출처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은 다소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증거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경 기록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이 지켜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구절은 출애굽기 16장인데, 바로 만나를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빵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지만,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언급인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일은 안식일, 곧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굶고 싶은 것은 굶고, 삶고 싶은 것은 삶고, 남은 것은 남겨 두어 아침까지 보관하십시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이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안식일로 구별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침까지 보관했고, 모세는 악취가 나거나 구더기가 생기지 않는 것은 오늘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오늘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땅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에 쉬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옛세 동안은 거두어들여, 안식일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음,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지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나이 산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기 전부터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명령을 받기 전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고 믿는 것은 시나이 산 언약의 명령이 안식일을

공식화한 것이지, 안식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안식일을 지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따르면 안식일의 기초는 창조에 있으며,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도 이 확언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의 원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할 수 있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신명기 5장에는 창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우리는 아마 몇 강의 전쯤에 이 부분을 기억했을 것이다.

오히려 안식일에 대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당신을 거기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에 근거한 다른 종류의 근거인데, 이는 신명기 전체 메시지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맥락에서 볼 때, 그 근거는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명기의 십계명을 다시 읽어보면 모든 내용이 출애굽기와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모순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완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논리는 일곱째 날 주기가 창조 당시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에 쉬지 않고 일하고, 일하고, 물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셨기에, 그들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민수기와 레위기는 안식일에 대해 자주 언급하지만,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신학적 난제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셔야 할까요? 창세기 이야기를 아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일을 멈추시고 그 날을 축복하시며, 그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본을 따라 그의 백성도 쉬어야 할 날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교회와 유대교의 오랜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와 유대교는 이 전통을 문자 그대로보다는 비유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 하나님이 쉬셔야 한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전통 모두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쉬셔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어야 하는 원리는 창조 당시에 확립되었는데, 이는 우주의 진정한 근간이 되는 생명의 리듬을 확립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만의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규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옷에 두 가지 다른 소재를 섞어 입으면 안 된다는 규정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그러한 원칙들보다 먼저 제정되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에 구속력을 지닙니다. 물론 십계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특별한 부분, 즉 정체성의 표식이 됩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그 맥락을 넘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라는 더 넓은 맥락에 위치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론적으로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했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모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나뭇가지를 모으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했다.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로 쳐 죽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의 행동으로 인해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그의 처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것에 대해 그렇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안식일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적어도 그 결정은 우리에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충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제가 켄터키주 월모어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당시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죠. 월모어는 소위 블루

시티(Blue City)였는데, 일요일에는 장사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닫혀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 일요일에 편의점을 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장 중 하나는, 켄터키주 월모어라는 작은 마을에서 정말 큰 논란이 되었던 일이죠. 한 가지 주장은, 한 가게가 일요일에 문을 열면 다른 가게들도 일요일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게는 일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일요일마다 그 작은 가게에 들러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모어는 더 이상 블루타운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일요일에 문을 여는 다른 가게들이 많으니까요.

첫 번째 사업이 댐을 여는 것 같은 거였나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동체 전체가 경쟁하고 모범을 따라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건 너무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공동체가 안식일이 세대를 거쳐 지켜지도록 스스로 감시하는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곧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역사는 어떨까요?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안식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적용되는지 살펴볼까요? 모세오경 외에는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도 몇 구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에는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식일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3절에서 수넬 여인의 남편은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역시 안식일을 초하루와 연관 짓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초하루는 당연히 한 달에 한 번 있는 일이었고, 특별한 축제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휴식의 날이 아니라 종교적 준수의 날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안식일과 그 공식화에 대한 아이러니와 어려움 중 하나는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만나러 여행을 떠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뭐야? 왜 이런 여행을 떠나는 거야?"라고 묻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여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식일은 나중에 이해된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구절은 우리가 수수께끼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11장에는 안식일에 왕궁에서 근무하는 경비병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경비병 교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부대는 근무를 마치고, 다른 부대는 안식일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경비병들이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이 구절은 당시 안식일이 휴식의 날이라기보다는 축제의 날로 여겨졌다는 생각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반면에 연대기 편자는 안식일 제사를 여러 번, 아니 여러 번 언급합니다.

안식일 희생 제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식일 전통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진 적이 없지만, 항상 안식일 준수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해 두루마리에는 안식일 희생 제사의 노래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는 이것이 유대인만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자체에 설정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즉, 안식일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희생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 희생 제사와 함께 쓰인 이 노래들, 다양한 곡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쿰란, 즉 사해 두루마리 공동체는 안식일에 이러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천사들과 연합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점, 사해 두루마리가 기록될 당시, 예수보다 200년 전에 그들은 안식일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장, 그리고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에서 총독은 안식일에 상업 금지령을 시행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 백성, 특히 예루살렘 백성에 대해 가장 큰 불평 중 하나는 그들이 안식일에 성문을 열어 놓고 무역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권력을 잡자 안식일에 모든 종류의 상거래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안식일에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이 처형당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 시대에 안식일 상거래 금지 조례를 시행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서에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옵니다. 유배 이전과 유배 이후의 선지서 모두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장사를 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가장 적게 지켰던 계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식일이 그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은 물론 가장 초기의 선지서 중 하나이고,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초기의 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모스는 언제 초승달이 지나서 곡식을 팔 수 있고,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팔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안식일에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장사가 금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로서 짐을 지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백성들에게 짐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에스겔 20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표징, 즉 정체성의 표시로 주신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징인데, 에스겔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관계를 어겼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사야 56장, 제 생각에는 포로기 이후의 기록이기도 한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내시와 이방인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2성전 시대 유대교는 안식일 준수가 진정한 정체성의 표식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이웃들과 훨씬 더 활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했고, 이웃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방인과 구별되는 관습들이 적어도 유대교의 특정 분파에게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다른 사람들과 섞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분파들이 있었는데, 마카비서에는 그들이 할례를 폐지하려 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의 일부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는 요소들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었고, 결국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2성전 시대에 안식일 준수는 매우 심각한 갈등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 준수는 정체성의 표식이었습니다.

마카베오 상권 143장에 따르면 유대 지역의 헬레니즘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무효화하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의 표징인 안식일마저 무효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티오크 박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존중하지 않는 그리스인, 마케도니아인, 그리고 그들의 동맹국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란 초기에는 한 유명한 사건과 그 주변 세력, 즉 경건한 하시디안 파벌과 마카비안 파벌이 있었습니다. 하시디안 파 중 일부가 안식일에 그리스 군대의 공격을 받았고, 그들은 방어를 거부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칼을 들지 않았고, 결국 모두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마카비 가문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맞서 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은 이 정체성 표시보다 보존이 더 중요하다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후에 마카비 가문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유대인이 멸종되었을 거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안티오크 박해가 끝난 후에도 유대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바빌론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페르시아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집트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티오크스가 유대 유대인들에게 퍼부었던 것과 같은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카비 가문이 안식일에 싸우기로 결정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보호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동전의 이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면, 그리스인들이 안식일에만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정책이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티오키아의 반란은 곧 끝났을 것입니다.

성전 시대, 박해 시대 이후,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정복당한 이후, 유대인들은 훨씬 더 큰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가끔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신의 축복의 표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개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과 로마인들도 그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대개 한 명, 어쩌면 두 명 정도의 아주 작은 가족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평균적으로 여섯, 일곱, 여덟 명 정도였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당시 피임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과 그리스인들은 유아 살해를 자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가족 규모를 작게 유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관행에 경악하여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퍼져 나가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추정에 따르면 이들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민족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웅변가 키케로는 유대인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연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들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 관습을 로마 여성들이 모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그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게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 참 기묘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상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되려고 애썼던 겁니다.

매우 흥미롭네요. 로마인들은 뭔가 새로운 것, 특히 동방에서 온, 조금은 생소하고 특이한 것, 예를 들어 야훼라는 비밀 이름 같은 것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일부 이방인과 일부 로마인에 의해 채택되었지만, 그들 모두가 채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일부 로마인들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었던 거죠.

로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흥미로운 양면적인 태도는 일종의 문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식일이 그저 게으름에 대한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모두 게으른 사람들이라 안식일에 강제로 일하게 할 수 없고, 유대인 노예를 데리고 있어도 그들의 안식일에 제대로 된 일거리를 얻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매혹과 모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음, 야시다시피, 이 부분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주요 충돌 중 하나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다소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기억하세요? 음, 기억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 안식일이네요. 깜빡할 뻔했어요. 아니, 아마 그보다 좀 더 중요한 날일 거예요.

매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세요.

거룩하게 하라. 일하지 말라. 나머지 엿새 동안은 수고하되, 일곱째 날에는 수고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나요? 물론, 결국에는 디아스포라 지역에서는 안식일에 항상 드리는 제사와 회당 예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었나요? 무엇을 할 수 없었나요? 무엇이 일이었나요? 아시다시피,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모으는 사람은 일이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정도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꽤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를 다음 날까지 붙잡아 두었다가 돌로 쳐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일로 여겨졌을까요? 나뭇가지를 줍는 것도 일인데, 돌을 줍는 게 일이라고요? 어쨌든, 바리새인들과 다른 유대교 종파들은 무엇이 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슈나와 탈무드에 나오는 후대의 율법 중 일부는 이미 복음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냐는 질문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제가 시카고 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유대인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호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녀가 말했어요. "유대인은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칠 수 없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제가 그녀에게 말했고, 유대교 경전인 미슈나를 지적해 줬어요. 안식일에 누군가 뼈가 부러지면 뼈를 붙일 수 없고, 부러진 팔이나 다리를 펴는 것도 안 되고, 물에 담가도 되지만 안식일에 문지르는 것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부러진 뼈를 문지르거나 붙이려고 하는 것이 일이라는 생각이 유대교 법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서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가 곤경에 처하셨을 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준수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자주 충돌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어느 날 제자들이 받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받을 지나가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만약 모든 곡식이 어딘가에 쌓여 있었고, 그들이 한 줍씩 집어 먹었다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곡식을 따 먹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고플 때 거룩한 떡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안식일이 인류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가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된다면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유지하고, 안식의 은혜를 유지하고, 예배의 은혜를 유지하되, 온갖 규칙을 법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후반부에서 안식일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안식일에 대한 언급도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여러 번 회당에 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계속 지키고, 회당에 계속 다니며,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마도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람들이 자신들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골로새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유대주의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세요. 어떤 유익이 있나요? 예수님의 접근 방식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나요? 안식일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휴식의 날인가요? 히브리서에는 전형적인 알렉산드리아식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식 해석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구약의 많은 관습과 율법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같은 맥락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그는 안식일이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안식의 예표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가끔씩 제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안식일이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참되고 순수한 안식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안식일은 일종의 예표와 같습니다. 마치 플라토닉한, 순수하고 완벽한 안식일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키는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누리는 순수하고 완전한 안식일의 희미한 반영일 뿐입니다. 신약 성경의 어떤 저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무도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더 나아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안식일의 원칙이 신약성경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까? 물론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 시점에서 갈라졌습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스스로 개발했지만, 당시 유대교에 만연했던 정신과는 다른 종류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항상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시대, 신약성경에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첫날,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과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그들은 안식일 첫날에 모였습니다.

아직도 그랬나요? 안식일이라고 불렀나요? 아니요, 당시에는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날이 있었고, 한 주의 첫날이었으며, 특별한 예배 시간으로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로마 세계에서 일요일은 쉬는 날, 즉 일을 쉬는 날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태양과 관련된 큰 축제들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 큰 잔치를 열었을 때, 노예들은 일을 쉬게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틈을 타서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에 일해야 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이방인으로 변하면서, 일요일에 더 집중하면서 유대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초기 교부들의 수사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기 100년경에는 교회가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예배와 휴식의 날로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대인의 토요일 안식일을 거부했던 초기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죠. 아주 실용적인 방식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쉬는 날과 예배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방식인데, 로마 달력 때문에 토요일에는 할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허락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요일 휴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죠.

이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재충전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일요일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요일은 일종의 기독교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이 안식일로 공식화된 것은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선포하면서였습니다. 안식일은 실제로 기독교의 안식일로 선포된 일요일보다 조금 늦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안식일로 공식화된 적이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 기독교의 안식일로 선포되기 훨씬 전인 교회사에서는 꽤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비공식적으로 우리의 안식일이었고, 실제로는 서기 1세기부터 비공식적으로 우리의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몇 번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실용적이었고, 교회가 일요일에 지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것이었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든 모든 율법의 일부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금해야 한다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구약의 율법에 얽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해 해방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비유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원칙들을 가르쳐 주고, 그 원칙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몽학선생 아래 있으면 결국 졸업하게 되고, 더 이상 몽학선생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운 모든 교훈을 잊어버린다는 뜻인가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운 교훈, 즉 스승이 우리에게 심어준 진리들은 나중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막대기로 우리 손을 때릴 사람이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원리들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 새겨넣는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시나이 산 언약의 표징이었지만, 창조 때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제시된 근거입니다. 후에 랍비들과 친구약 중간기 유대교에서 인용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는 특별히 유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만의 유익이 아니라 인류에게 유익한 것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이 인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휴식의 날, 새 힘을 얻는 날을 통해 유익을 얻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을 지키므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유익들은 구약과 신약의 여러 성경 구절에서 모두 언급됩니다.

우선, 안식일의 환경적 이점입니다. 세상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에는 동물들을 쉬게 하세요. 고양이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땅은 안식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안식년은 보통 7년마다, 아니면 매달 안식년처럼 주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어야 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매주 하루씩 쉬는 날이 주어졌습니다. 자, 동물들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일시키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땅과 세상, 여러분의 피조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안식의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은 안식일 제정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핵심이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익합니다. 역사 속에서 폭군들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폐지하려고 시도했던 여러 시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한때 기독교 안식일을 없애면 기독교와 그들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땅은 휴식이 필요하고, 동물들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프랑스를 주 10일 근무제로 바꾸려고 했을 때, 말들이 지쳐 죽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일곱째 날 주기에 더 잘 맞는 무언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건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바빌로니아인, 이집트인, 로마인을 보면, 그들에게는 일주일이 일곱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은 이상한 이유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윤리적 근거는 다른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필요한 휴식을 제공해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론, 이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모두에서 강조되는데, 사람을 빼가 빠질 때까지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식일 준수는 국가에 의해 강제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요일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정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노동을 금지합니다.

일요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 더 쉬면 됩니다. 중요한 건 휴식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일은 좋고 휴식은 별로다"라는 논리가 자리 잡게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밀어붙입니다. 이는 오늘날 일부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탈진하여 죽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직원들을 빼 빠지게 일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공평한 휴식 시간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러한 윤리적 함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착취하려는 사람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자기 직원들을 일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박해서 일해야 할 시간을 훨씬 넘겨서라도 계속 일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내재된 그 주기를 계획하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억압받는 사람들,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 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매주 시간의 일부를 예배, 성찰, 가족, 그리고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룩한 방식으로 다시 연결하는 데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일주일의 패턴을 형성하는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그 일요일은 여러분의 나머지 일주일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요일을 골프장에서 보낸다면, 우리는 그런 거룩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좌절감만 느낄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텔레비전 앞이나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영적으로 격려받고, 남은 한 주를 위해 새롭게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양식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75년도 더 전에 레티 카우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교사이자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며 긴 여정을 떠나던 한 여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부족 출신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짐을 실어 주었습니다. 첫날, 그들은 빠르게 이동하며 먼 길을 행군했습니다. 여행자는 그들이 얼마나 잘 나아가고 있는지에 그저 설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부족민들은 움직이기를 거부하고 그냥 앉아서 쉬었습니다. 여행자들이 그들을 설득하고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날에 너무 멀리 갔고, 이제 영혼이 육체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티 카우먼은 이렇게 권고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소용돌이치고 분주한 삶은 3월 첫날이 그 불쌍한 정글 부족민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차이점은 그들은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생각해 보세요. 75년 전의 일인데, 오늘날 삶의 속도는 얼마나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안식일은 얼마나 더 소중하고 중요할까요? 우리가 몸과 함께 영혼을 치유하고, 재충전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얼마나 더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5차시 ,
4계명: 안식일입니다.